

제34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On the Possibility of Common Values for Humanity



2015년 9월 21일(월)~22일(화)

경희대학교



초 대

경희대학교가 제34회 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Peace BAR(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 Festival 2015를 개최합니다. 세계평화의 날은 1981년 경희의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제의, 코스타리카 정부의 UN 총회 제안으로 UN이 제정, 선포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매년 개최해온 Peace BAR Festival이 올해로 34회를 맞습니다. 올해 Peace BAR Festival은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첫째 날에는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과 '현실 정치의 높은 벽에 맞서 시민과 정치의 새로운 책무를 일깨우던 한 세계인'을 기리는 특별한 행사를 갖습니다. 벨벳 민주혁명의 주역 故 바츨라프 하벨(1936~2011) 전 체코 대통령께 명예 평화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그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원탁회의>를 갖습니다.

이틀날에는 <특별좌담>을 개최합니다. “대학의 미래, 미래의 정치: 21세기,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전·현직 대학 총장 세 분이 자리를 함께해 '성찰과 전망'의 자리를 갖습니다.

성장과 소외, 번영과 고통이 교차하는 현대문명. 이 '불확실성의 시대'엔 인류와 문명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과 정치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오늘을 이어가야 합니다. Peace BAR Festival 2015에 자리를 함께하셔서, 이 시대 인류문명의 현주소를 성찰하고, 내일을 전망하는 '상상과 모색'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총장

조인원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

세계평화의 날과 해는 1981년 경희대가 제안하고 UN이 제정하면서 정례화되었습니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제6차 총회에서 조영식 경희대 총장은 UN이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IAUP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해 UN에 전달했고, UN은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UN 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했습니다.

당시 UN 총회 결의문(Resolution 36/37)에는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시키고자” 제정되었으며, “모든 UN 회원국, 산하 기관과 기구, 지역기구, NGO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UN과의 협력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UN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습니다.

냉전체제의 완화가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IAUP의 생각은 시의적절했습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가 제안되던 무렵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던 동·서 양 진영은 세계평화의 해가 공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986년 1월 1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상대 국민을 향해 신년 평화의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전달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양국이 추진해오던 군축회담도 진행되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핵무기 감축안이 마련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개 관

Peace BAR Festival 2015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명예박사학위 수여 기념 원탁회의

바츨라프 하벨:

진실한 정치, 그 영원한 책무와 시민의 역할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故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세계평화의 날 기념 특별좌담

대학의 미래, 미래의 정치:

21세기,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

축하공연

- Dvořák Serenade for Strings
Op.22, II. Tempo di Valse
- 목련화

구성원 참여 프로그램



취지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가능성의 미래

‘행복한 삶, 어떻게 이를 수 있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근본 화두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사이의 갈등과 고통, 불안과 불신의 정조(情調)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잇달아 공개되는 지구 문명 보고서는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문명 융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굶주림과 가난, 깨끗한 물 한 모금의 절규, 증폭되는 빈부격차, 일상화된 핵·테러 위협, 녹아내리는 극지방 빙하와 생태 위기.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문명의 흐름은 ‘인간 이 과연 안전과 행복의 조건을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집니다.

경희대학교는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가 1981년에 제안한 UN 세계평화의 날 34주년을 기념합니다. 올해는 특히 UN 창설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 행사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경희는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삶의 근본 가치, 안전과 행복은 어떻게 이를 수 있나? ‘우리는 현대문명의 수혜자로, 그 특권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Peace BAR Festival(PBF) 2015를 개최합니다. 행사 개막을 알리는 9월 21일 오전 행사 기념식에서는 지난 33년의 세계평화의 날 개관 소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의 기념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대문명의 오만과 억압 정치에 맞서 한평생 ‘역사의 진실’과 ‘책임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벨벳 혁명(Velvet Revolution)’의 주역故 비츨라프 하벨(Václav Havel) 전 체코 대통령께 명예 평화학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뒤이어 이를 축하하는 체코 국립 음대와 경희대 음대의 특별한 공연을 갖습니다. 당일 오후에 진행될 <명예박사학위 수여 기념 원탁회의>는 하벨 연구의 권위자 체코 카렐대학교 마르틴 부트나(Martin C. Putna) 교수와 국내 전문가가 자리를 함께해 이 시대 하벨의 생애와 철학이 주는 역사적 의미를 성찰합니다. 다음 날 9월 22일 진행될 <세계평화의 날 기념 특별좌담>에는 전·현직 대학 총장 3인이 함께해 ‘성찰과 전망’의 자리를 갖습니다. 이 시대 대학과 정치, 정치와 대학은 어떤 문제의식과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과 함께 더 나은 인류와 문명의 내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일궈가야 할 혁신과 창조를 모색합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인간의 미래를 위한 꿈과 상상, 가치의 길을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안위와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PBF 2015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주 제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일 시 2015년 9월 21일(월)~22일(화)

장 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10:00~10:25 9월 21일(월)	개회	정종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직무대행
	세계평화의 날 개관	정종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직무대행
	축하 메시지(영상)	반기문 UN 사무총장
	기념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10:25~11:30 9월 21일(월)	프리젠테이션	송재룡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故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수락사	이반 하벨 전 카렐대학 이론연구소장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의 동생)
	축하공연	체코 국립 음악대학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협연 • Dvořák Serenade for Strings Op.22, II. Tempo di Valse • 목련화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제34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5는 특히 광복 70주년과 UN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가 이미 21세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와 빈곤, 빈부격차, 일상화된 핵·테러 위협, 녹아내리는 극지방 빙하를 포함한 생태계 위기 등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안전과 행복의 조건을 더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여전히 함께 추구해야 할 삶의 근본 가치'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 시 2015년 9월 21일(월) 10시

장 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개회	정종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직무대행
세계평화의 날 개관	정종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직무대행
축하 메시지(영상)	반기문	UN 사무총장
기념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꿈과 상상, 가치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세계시민에 주목합니다. 그는 현대문명의 오만과 억압 정치에 맞서 한 평생 '역사의 진실'과 '책임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벨벳 혁명'의 주역故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입니다. 하벨 전 체코 대통령에게 명예 평화학 박사학위를 수여 하면서, 인간의 양심과 진실 그리고 시민의식에 대한 그의 사유가 이 시대 우리 사회와 문명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 2015년 9월 21일(월) 10시 25분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프리젠테이션	송재룡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故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수락사	이반 하벨	전 카렐대학 이론연구소장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의 동생)
축하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vořák Serenade for Strings Op.22, II. Tempo di Valse • 목련화 <p>체코 국립 음악대학,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협연</p>	



명예박사학위 수여 기념 원탁회의

바츨라프 하벨: 진실한 정치, 그 영원한 책무와 시민의 역할

명예박사학위 수여 기념 원탁회의는 바츨라프 하벨의 생애와 사상을 오늘 이 시대,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하벨은 극작가이자 시민운동가로 체코슬로바키아 무혈 민주혁명 ‘벨벳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시대의 양심으로, 자유와 책임의 신봉자로, 체제 억압에 항거했던 그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양분되는 전환기에 체코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동구권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한 하벨의 실천적 행보는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는 하나의 ‘렌즈’입니다. 진실한 삶과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책임 정치’를 강조한 그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그에게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권력투쟁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시민적 공감과 연대를 통해 시대가 원하는 열린 정치의 가능성을 찾아 나섭니다. 이런 관점과 함께 하벨은 인간의 인간사회, 인간의 문명사회를 모색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 일깨웁니다. 우리 시대 혁명이 하벨이 영접한 ‘반정치의 정치(anti-political politics),’ ‘불가능의 예술(the art of the impossible)’인 정치는 투쟁과 술수로 점철된 ‘현실 정치’의 벽을 넘어설 또 다른 삶의 조건입니다.

명예박사학위 수여 기념 원탁회의 전반부는 ‘진실한 정치,’ ‘시민의식과 책임 정치’를 강조했던 체코의 하벨을 만납니다. 후반부는 ‘하벨의 렌즈’를 통해 한반도 정치와 문명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정치가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 ‘기술 정치’의 제약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치의 ‘초월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민과 국제사회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의 미래를 살피는 것이 이 모임의 취지입니다.

일시 2015년 9월 21일(월) 15시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주제	바츨라프 하벨: 진실한 정치, 그 영원한 책무와 시민의 역할	
패널	마르틴 부트나	체코 카렐대학 교수, 전 바츨라프 하벨 도서관장
	김민웅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박영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사회	송재룡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세계평화의 날 기념 특별좌담

대학의 미래, 미래의 정치: 21세기,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

21세기, 문명의 적폐가 우리 모두의 큰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지구촌 곳곳에 거둬지는 현대적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부와 권력의 편중, 소외와 상실, 자연과 자원의 '과도한 소비'에 따른 위태로운 생존의 조건, 지속되는 테러와 폭력, 이 모든 위협에 왜소해진 개인. 이러한 문명사적 위기의 증후가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역사의 종언,' '문명 붕괴,' '디스토피아 도래'란 어두운 전망이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스스로 존귀하고, 존엄해야 할 '인간의 조건.' 그 조건은 과연 성취될 수 있는 것일까? 그 누구도 앞날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법의 한 흐름은 정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물려줄 문명의 조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간화, 문명의 인간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지속가능한 삶과 문명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주어진 정치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래를 긴 호흡으로 준비하지 않는 '현실 정치'입니다. 권력과 투쟁, 쟁취의 단기 과제에 집중하며,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삶의 의미를 경시하는 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입니다. 세계평화의 날 기념 특별좌담 "대학의 미래, 미래의 정치: 21세기,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는 이 문제를 살핍니다. '상호 연결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 시대에 주어진 '인간적 과업,'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에 주목하며, 미래를 열어갈 정치의 새 지평을 탐색합니다. "21세기 정치는 어디를 향할 것인가?", "대학은 인간과 문명, 지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의 운명을 좌우할 대학과 정치의 미래를 상상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5년 9월 22일(화) 15시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주제	대학의 미래, 미래의 정치: 21세기,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
패널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사회	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장



구성원 참여 프로그램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평화주간 선포식

세계평화교육에 기반을 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을 되짚어 보고, 세계평화를 위한 교육실천과 활동을 다짐하고 선포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5년 9월 16일(수) 11:50~12:30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2015년 9월 17일(목) 15:00~15:30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B114호

주제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대상	경희구성원
주관	서울·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전시회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 이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이 걸어온 발자취와 활동기록을 전시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5년 9월 16일(수)~9월 22일(화)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B114호

주제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대상	경희구성원
주관	서울·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평화토크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생 기획단이 자율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PBF 2015 주제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할 가치와 그 가능성의 미래를 살펴봅니다.

일시 및 장소 2015년 9월 18일(금) 서울캠퍼스 청운관 506호

주제	글로벌 인재, 어떻게 키울 것인가? • 글로벌 이슈와 평화에 대한 경희인의 도전
대상	경희구성원
주관	2015 평화토크 학생 기획단, 서울·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PBF 2015 공모전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의 미래를 위한 꿈과 상상, 그 가치의 길을 모색합니다. 'PBF 2015 주제', '평화'와 관련된 감상문 또는 영상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일시 2015년 9월 7일(월)~11월 13일(금)

주제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대상	경희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미래문명원, 대외협력처 홍보실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PBF 2015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며, 국내 대학생 및 인사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통한 세계의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5년 9월 19일(토) 9:00~17:50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401호

주제	교육을 통한 세계의 평화
대상	경희재학생 포함 국내 대학생
주관	GSC(지구사회봉사단)

故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관련 전시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이끈 주요 인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대통령과 체코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故 바츨라프 하벨 관련 도서, 사진, 다큐멘터리를 감상합니다.

일시 및 장소	도서, 사진	2015년 9월 16일(수)~18일(금) 본관 진입로(중앙도서관과 온실 사이)
		2015년 9월 21일(월)~22일(화) 평화의 전당 로비
다큐멘터리		2015년 9월 16일(수)~18일(금) 도서관 시청각실
		2015년 9월 21일(월)~22일(화) 평화의 전당 로비

대상	경희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미래문명원, 중앙도서관, 경희기록관, 체코 문화원

제34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전시회

PBF 2015를 맞아 경희 평화 운동사를 회고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권, 여성, 평화 등 글로벌 이슈와 자원 활동에 관련된 경희대학교 구성원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참여자 중심의 평화 부스를 운영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5년 9월 16일(수)~18일(금)	본관 진입로(중앙도서관과 온실 사이)
	2015년 9월 21일(월)~22일(화)	평화의 전당 로비

대상	경희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미래문명원, 경희기록관, GSC(지구사회봉사단)

세계평화의 날 기념 경희 인문학 포럼

제34회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PBF 2015의 일환으로, “자기성찰에 대한 단상(斷想)”이라는 주제 하에 경희 인문학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심리학과 인지과학 분야 전문가이자 전 카렐대학교 이론연구소장인 이반 하벨 교수를 초청해, 주제인식과 인간의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5년 9월 22일(화) 10:30~12:00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
---------	---

주제	자기성찰에 대한 단상(斷想) Tentative Thoughts on Introspection
초청자	이반 하벨 전 카렐대학교 이론연구소장
대상	경희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미래문명원, 문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Peace BAR Festival 연혁: 한반도에서 몸, 문명, 우주까지

경희대학교는 1981년 경희의 제안으로 제36차 UN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9월 세계평화의 날에 즈음해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해왔습니다.

1982~1990	1982	현대사회의 위기와 국제평화
	1983	세계평화: 그것은 가능한가
	1984	UN을 통한 세계평화
	1985	UN: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86	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1987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1980년대 후반의 한반도
	1988	동북아시아와 21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1989	동·서 갈등을 넘어서 평화: 1990년대 동북아의 안위와 세계평화
	1990	동·서 관계의 변화와 평화로운 신국제질서의 모색
	1991~2000	1991
1992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신국제질서
1993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역협력을 향하여
1994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5		관용,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6		21세기, 세계공동체를 향한 평화전략과 UN의 역할
1997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
1998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 현대문명을 넘어서
1999		21세기, 평화는 가능한가
2000		21세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2001~2010	2001	문명 간 대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2	Pax UN을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3	네오르네상스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4	평화를 위한 긴급 과제: 테러리즘의 극복
	2005	이념 이후의 시대: 21세기 대안문명을 말한다
	2006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2007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2008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2009	경희 평화 워크숍
	2010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
2011~2014	2011	몸과 재앙: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2012	인간, 정치, 문명
	2013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2014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961-0114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tel 031-201-3114

광릉캠퍼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 tel 031-570-7012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968-2233